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만세 만세 만만세”... 뮤지션들이 부르는 백년 합성

가수들이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급 행사의 전면에서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KBS가 28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야제에서 양희은, 알리, 뮤지컬배우 민우혁이 '100년의 명곡'을 통해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을 들려준다.

뮤지컬 배우 정성화, 김소현은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 역을 맡아 100년 전 불을 이끈 영웅을 그린다. '100년의 위로'에서는 김윤아의 노래 '고인 줄'이 울려 퍼지고 독립운동가 후손 연예인 박환희, 한수현, 윤주빈이 선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다.

김소현, 포레스텔라, 스칼라합창단의 공연을 통해 무명 독립운동가의 뜻과 젊은날의 희생을 위로한다. 송소희, 유태평양, 고영열, 김준수 등 젊은 소리꾼이 민족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아리랑 무대를 펼친다. 홍진영, 지코, 다이나믹 듀오, 위키미키 등은 100주년을 축하하는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사회는 가수 겸 배우 진영, 배우 김유정, 아나운서 조충현이 본다. KBS 2TV가 생중계하는 이날 행사는 KBS월드를 통해 117개국에 동시 중계된다.

3월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2019 원 K 콘서트'에도 가수들이 대거 나온다.

프로젝트 그룹 '위너원' 출신 하성운을 비롯해 오마이걸, 몬스타엑스, 에이프엘, 아스트로,

각급 행사 전면에서 나서

문체부 전야제서 양희은·알리 등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 들려줘

내달 1일 여의도 개최 원 K 콘서트서

오마이걸·몬스타엑스 등이 참여

SF9, (여자)아이들, 김조한, 백지영, 정인, 알리, 치타, 벤, 서지안, 김구봉, 주니엘, 라뷰, 소나무, CLC, 드림캐쳐, DETTO, KARD, 온앤오프(ONF), TRCNG 등 총 24팀이다.

특히 하성운은 위너원 활동 종료 후 첫 솔로 무대를 이날 선보인다. 글로벌 대체돌로 떠오른 몬스타엑스,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우주 역을 맡은 찬희가 소속된 SF9도 눈길을 끈다. 이상민, 구구단 세정, 아스트로 차은우가 MC다. 1만석 규모로 전석 무료 초대다.

인디 밴드들도 빠질 수 없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3월1일 용산동 극장 용에서 펼치는 '독립정신, 독립밴드 독립군가 부른다!'에 대거 출연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화강국을 꿈꾼 백범(白凡) 김구를 기리기 위해 1세대 인디밴드들이 나온다.

자메이카의 스카 장르를 우리나라 음악에 정착시킨 밴드 '킹스턴 루디스카'가 애국가를 자신들의 색깔로 재해석한다. 레이저본은 '망향가', 크라이닝은 '독립군가'를 들려준다.



국내 인디밴드들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3월1일 용산동 극장 용에서 열리는 '독립정신, 독립밴드 독립군가 부른다!'에 대거 출연한다. 사진은 크라이닝.

재단은 "독립운동 당시 불린 항일노래를 밴드들이 자신들의 색깔에 맞게 편곡해 부르는 것은 뜻 깊은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을 결코 잊지는 않겠다는 의지"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홍보대사인

래퍼 비와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곡 '나의 땅'을 작사, 작곡했다. '지난 100년 역사에 대한 기억과 감사' 등이 주제다.

개별적으로 3·1운동 기념곡을 낸 가수들도 있다. 심어송라이터 안치환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 음

인디 밴드들도 대거 참여

레이저본·크라이닝 등 1세대 밴드

스카 장르 정착 '킹스턴 루디스카' 등

내달 1일 '독립정신, 독립밴드

독립군가 부른다'에 대거 출연

원 '백년의 합성'을 발표했다.

행진곡풍이다. "만세 만세 만만세 백년의 합성 외쳐라/ 만세 만세 만만세 민족의 긍지 높이 세워라"라고 노래한다. 3·1 운동 당시 공원의 모습을 담았다.

김정훈은 '독립군 애국가'를 음원 사이트에 무료 공개했다. 국가보훈처의 요청으로 광복 60주년 기념 독립군가 앨범에서 김정훈이 부른 곡을 밴드 '피아'와 함께 곡으로 재편곡했다. 김정훈은 '전국민 SNS 의병프로젝트' 등도 계획하고 있다.

가수 박정현은 KB국민은행이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펼친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다시 부르는 여옥사 8호실의 노래'에 참여했다. 올해 초 후손들에 의해 선을 없이 가사가 100년 만에 발굴됐다는 소식을 접한 은행이 새롭게 곡을 붙여 음원을 제작했다.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 환송행사 '하나의 봄' 음악감독 정재일이 작곡했다.

/뉴시스

주목받는 K-pop스타

몬스타엑스

‘넘어지고 깨어졌다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

저러다 몸이 부서지지는 않을까. 그룹 '몬스타엑스'의 휘몰아치는 무대를 볼 때마다 찾아드는 걱정이다. 잇따른 앨범 발표, 해외 투어도 항상 병행하고 있다.

민혁(26)은 "저희가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까닭은 항상 '기대를 받는 팀'이었기 때문이에요. 상을 받거나 평가를 받을 때 '내년 기대되는 가수'라는 수식어가 따랐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라고 말했다.

2015년 데뷔한 몬스타엑스는 꾸준히 성장을 해오다 지난해 탄력을 받았다. 무대에서 틈을 보이지 않은 안무와 폭발적인 매너로 입소문을 타더니, 해외에서도 큰 반응이 오고 있다. 특히 세계 20개 도시 25회 월드투어, 미국 6

개 도시에서 12만 관객을 끌어모은 현지 가수들과의 합동공연 '징글볼' 투어로 북아메리카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음악 플랫폼 판도라에서 '2019년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로 선정되고, 빌보드가 뽑은 '2019년 가장 기대되는 K팝 앨범10'에도 이름을 올렸다.

민혁은 "한번에 1등이 되고 한번에 좋은 상을 받았으면, 지금처럼 열심히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요. 여유를 가지고 다음해 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열심히 해왔죠. 바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 접목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특정한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려고 했죠"라고 설명했다.

물론 조바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원호(26)는 크게 주목 받지 못하던 2년 전 소속사



스타일엔터테인먼트 이사에게 물어봤다. '지금의 인기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을까요?'라고 이사가 답했다. "이 정도 할거면 애초에 너희들 만들지도 않았다."

원호는 "성적이 좋지 않을 때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됐다"고 긍정했다. "좋아하는 일을 해 와서 지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재밌는 일도 계속하면 지치지만, 저희 나름 휴식이 있었죠. 앨범을 준비하고 투어를 도는 것이 여행처럼 즐거웠어요."

몬스타엑스는 여전히 여행을 쉬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규 2집 첫 번째 파트 '테이크 원. 아 유 데이'를 낸 지 불과 4개월 만인 최근 '위 아 히어더 2nd 앨범 테이크2'

를 내놓았다.

데뷔 이후 4년 간의 성장사를 녹여넣은 이번 앨범에서 타이틀곡 '엘리베이터'는 강렬한 힙합 사운드와 퓨처팝 사운드가 혼합된 곡으로 몬스타엑스의 인장감과 같은 노래다.

'플레이 잇 콜'은 일본계 미국 DJ 겸 프로듀서 스티브 아이오키(42)가 작업한 곡이다. 아이오키는 빌보드와 그래미어워즈를 넘나드는 세계적인 DJ 겸 프로듀서다. 아프로팝, 댄스 파크, 톤 디아블로, 방탄소년단 등과 작업했다. 이들의 만남은 앞서 아이오키가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협업 러브콜로 시작했다.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K팝 가수로 몬스타엑스를 꼽았다.

몬스타엑스는 다음 스텝을 벌써부터 고민 중이다. "몬스타엑스는 이미 강함"으로 인식됐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해왔어요. 이제는 눈을 감고도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번 앨범에 실린 '플레이 잇 콜'이 그래요. 평안하게 즐길 수 있는 노래죠."(민혁) /뉴시스

정읍만의 특별한 차 한잔

맛과 향, 건강까지~

30년 세월 녹아든 전설의 쌍화차 거리!

정읍의 자랑 숙지황과 생강과 대추 등 스물 여 가지 약재를 사랑과 정성으로 달여 밤과 은행, 잣 등 고명을 얹으면

정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 잔의 보약, 바로 정읍의 쌍화차입니다.

쌍화차

오랜 전통과 정성이 깃든, 깊은 맛의 쌍화차!

쌍화차 거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차 한 잔에 담긴 사랑과 행복~

따뜻한 정과 감동은 덤입니다!

정읍시 JEONGEUP-SI